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수아









2015.7.29 PD수첩 그 남자, 왜 그녀에게 등을 돌렸나

PD수첩 2030 미혼남성 인식조사¹⁾

 남성 48.4%

‘김치녀’에 대해 공감한다

대상 : 서울지역 남성 500명
조사기관 : Macromil/embran
조사기간 : 2015.7.29~30
응답률 : 71.6%
표본오차 : ±4.36





딱!! 조타!!! 남자고 딱!! 실타!!!

1. 터치레이 하는 여자.
2. 쿨한 여자.
3. 같이 게임하는 여자.
4. 욕안하는 여자.
5. 성격 좋은 여자.
6. 예쁜 여자.
7. 옷 잘 입은 여자.
8. 요리 잘 하는 여자.

1. 일베충 (ex. 노무늬, 이기야!!).
2. 김치녀.
3. 과한 안경잡이.
4. 남자 밝히는 여자.
5. 담배피는 여자.
6. 야스오하는 여자. (야필퍼).
7. 티모하는 여자. (티확펫).
8. 감식 조금 주는 여자.
9. 가수인줄 알고 노래 부르는 여자.
10. 털 많은 여자.
11. 음 북심 부리는 여자.

	좋은놈	나쁜놈.
<p>키 큰 남자 (180).</p> <p>유머러스한 사람.</p> <p>아름답게 차려입은 남자 (특히 유머 차려입은).</p> <p>잘생기진 않았는데 만나보면 끌리는 남자.</p> <p>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끈성적인 사람 (ex. 배민, 네이버).</p>	<p>대너 지는 남자 (뒤에서 삼용어. 청거리는 사람 ex. 애칭)</p> <p>내 말을 잘 듣거나 사람.</p> <p>솔직한 남자 (특히, 청원, 파비).</p> <p>높이 삼하게 부는 남자.</p> <p>눈웃음이 매력적인 남자.</p>	<p>담배피는 남자</p> <p>욕 많이 하는 남자</p> <p>말하니까 수줍은 딸이냐 남자 (막말하는 남자)</p> <p>예의 없는 남자</p> <p>거짓말이 일성인 남자</p> <p>조란한 남자</p> <p>남친행이 하는 남자</p>



전 여혐문화리는걸 커뮤니티 하면서 처음 알게 됐네요

글번호 2291802 | 2015-04-16 09:43:38 | IP 118.40***.188

조회수 **1022** 추천수 **0**

불펜 활동한지 한 3~4년 정도 된거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인터넷에 여혐문화가 있다는거 자체를 몰랐네요

대부분 오프에서는 주위에 여자라면 환장하는 사람들 천지라..



-

4

-

-

-



















HOT [] | 👍 31 🗨️ 0

이게 뭔 개소리임?

HOT [] 👍 20 🗨️ 0

아...그렇군요 이제 메갈로 돌아가주세요.

HOT [] | 👍 16 🗨️ 0

왓능가

HOT [] 👍 18 🗨️ 0

메갈하는 여성ㅋㅋㅋ 일베하는 남성만큼이나 어색한 표현이네

HOT [] 👍 34 🗨️ 0

네 다음 메택지











6. 소주소심? 재기해?? 성,언어폭력 난무!!!

소주소심! (고추가 작아 안들려) 재기해! (자살해), 울지마!! 울지마!! 여자들의 집단조롱

그토록 성폭력 언어폭력 비판하던 것들이 음담패설로 인신공격하고 고인이 된 한 남성인권운동가를 조롱하는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별이 바뀌었다면 저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광란과 폭력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예의 있게 매너 있게 당연한 맞는 말을 당연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분들에게서 반성할 부분과 유익한 부분을 배웠다.

그러나 진심은 통할 거라 생각했지만.

끝까지 비아냥 거리며 욕하며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내 생각엔.. 페미니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반감을 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페미니스트들의 적이다.

많은 논리적 글들 사이에 묻어있는 똑같은 댓글들이 시아를 벗어나게해 토론을 방해 하고 소통할수 없게 한다. 논지를 벗어나게 한다.

논쟁과 토론을 무시하는 공공의 적이다.

만약 교인들이 무교인 사람들에게 예수 모른다고 "어휴.. 저 답답한 무식한 뺨은 무교층 성경공부는 셀프로 하시고 구역질 난다 무교층 세끼들 다 뒤흔으면 좋겠다" 라 했다고 상상해봐라..

실제로 만난 얼굴 보고 말한 페미니스트들은 이렇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마저 내가 무섭게 생겨서 약자인 여성으로써 폭행의 두려움을 느껴.. 예의 바른 척 한 거였나? 의심된다.





그저 존댓말로 차분한 말투만 쓰면 자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네요. 이런 유형들은 존댓말을 기본적으로 써야하는 사이트에서 항상 존재하는데 메갈 관련 실드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군요.

내로남불의 전형을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여러 비판댓글 중 자신이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댓글만 취사선택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게 말투 공격입니다.

분명 댓글 쓰면서 논리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돌려짜기식 조롱성 발언 내뱉어 놓고 이에 상대방이 맞받아치면 논리가 아닌 인신공격 한다며 수준낮은 사람 취급하네요.

그리고서 자신은 절대 그런 짓 안했다는 것처럼 꼭 덧붙이는 말들이

상대방의 흥분한 말투를 공격하며 토론자세가 안 갖춰 졌다는 식의 정신승리하는데 참...

마치 싸움에서 우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우기는 모습과 똑같네요.

그저 존댓말만 쓰면 올바른 토론자세와 객관적 논리가 저절로 생겨나요?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를 확산하는 '공유'가 아닌, 피해 중단을 위해 '피해에 공감'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상황은 변할 수 있다. 바로 당신으로부터!

추적자의 제안 <공감을 위한 Tip. 할 수 있어요!>

☑ P2P사이트에서 유포된 피해 파일을 발견한다면?

각 게시물에는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 친구가 '혹시 그거 봤어? 유출된 XX'라며 카톡을 보낸다면?

친구를 신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난 볼 생각 없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소라넷하니...? @rusoranetfollow · 11월 8일

수원시 자원순환과 소라넷하니.....?

@suwonclean



소라넷
@soronet

트윗
1,169

팔로잉
121

팔로워
380,846

더 보기 ▾



팔로우



청귀
@hark10939034



팔로우



수원시 자원순환과
@suwonclean



팔로우



442



26













몰카, ~~찍~~히지마세요!

2014년 몰카 범죄 6000건 이상

질거는 성범죄나 불구려가 아니라, 인권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하락 없이 타인의 신체의 촬영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013년은 신원정보 유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자.

처음에 단순히 살인범죄 피해자를 놓고 비율만 봤을땐 여성이 높았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보니 얘기가 다르다.

아시아 및 유럽은 살인범죄 피해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책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밑줄 참조)

"세계적으로 봤을때는 남성의 피해자 비율이 매우 높지만, 몇몇 국가들, 동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하게 살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라들에서 살인범죄 자체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명

1시간 · 🌐

인식에 대한 투쟁이라면 응원한다. 이 살인사건이 계기가 된 것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을 향한 모순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기왕이면 여성부 앞에서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혐', '남혐'이라는 관념이 실재하는지는 모르겠다. 혹시 그런 '대결 구도'가 필요한 집단들이 있는 것은 아닐는지. 다만 있다손 치면, 그것은 8할이 여성부와 여성 단체들 탓이다. 지난 몇 년간 여성부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자.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을 '약자'로 보는 관점하에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이 우스꽝스러운 정책들을 짚어 냈다. 그들은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모른다. 그저 위에서 군림하는 또다른 권력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여성단체들. 이들은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전화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나만 불편해?'로 정당화 된 이들의 떼거리 권력은 최근 들어 많은 희생자들을 배출했다. 내가 진짜 심기 불편한 부분은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군복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인데 말이다. "언냐들, 이 판결 나만 불편해?"

아무튼간에, 저기 동참하는 여성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자 설현'이 본인이 저지른 실수 이상의 수준으로 마녀사냥 당하고 있을 때는 다들 어디 있었나도 무척 궁금하다. 혹시 '흔하디 흔한 여자애가 메이크업빨, 회사빨, 언플빨로 뜯겨지' 하며 같이 비아냥 거렸거나 대세녀의 몰락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면, 들고 있는 포스트잇 갖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양심이다.

대한민국 여성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책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남성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짚 손 잊어요"가 메인 캠페인이어야 하

공유하기

102명



<p><i>근거(data)</i></p> <p>여성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p> <p>(법의 바깥에서) 부조리는 모두가 겪고 있다.</p> <p>차별은 여성보다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더 경험한다.</p>	<p>-----></p>	<p><i>따라서 (주장)</i></p> <p>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불평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여성혐오'를 논하는 저런) 페미니스트들은 틀렸다</p>
	<p><i>추론규칙(에 의하여)</i></p> <p>법이 있으니 차별은 없다</p> <p>(이슬람사회와 다르게 민주주의 사회이다)</p>	





군대, 취업, 결혼... **남자들이 고통받는 세상?**













[Redacted]

#

16/06/08 19:25

1. 서열경쟁에서 승리한 남자
2. 패배한 남자
3. 1의 짝짓기 상대 경쟁에서 승리한 여자
4. 패배한 여자

로 나누면, 지금 여성 운동은 34가 2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여성 전용시설, 여성 우대제도 설치 등)

4가 3하고 평등해지거나(성 상품화 제한)만 요구하지 2는 그냥 신경도 안쓰거나 밟고 올라가려하거나 합니다. 저 사람도 말하는 거 보니 똑같고요.

1234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면 남성, 특히 2번에 속하는 남성들의 반대에 매번 밀려날텐데.

[Redacted]

#

16/06/08 19:29

특히 요즘 세대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2의 수도 유난히 많아요 ㅎㅎ

[Redacted]

#

16/06/08 19:36

근데, 2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한국사회는 1-3-2-4 순서로 서열이 정리되는 듯도 합니까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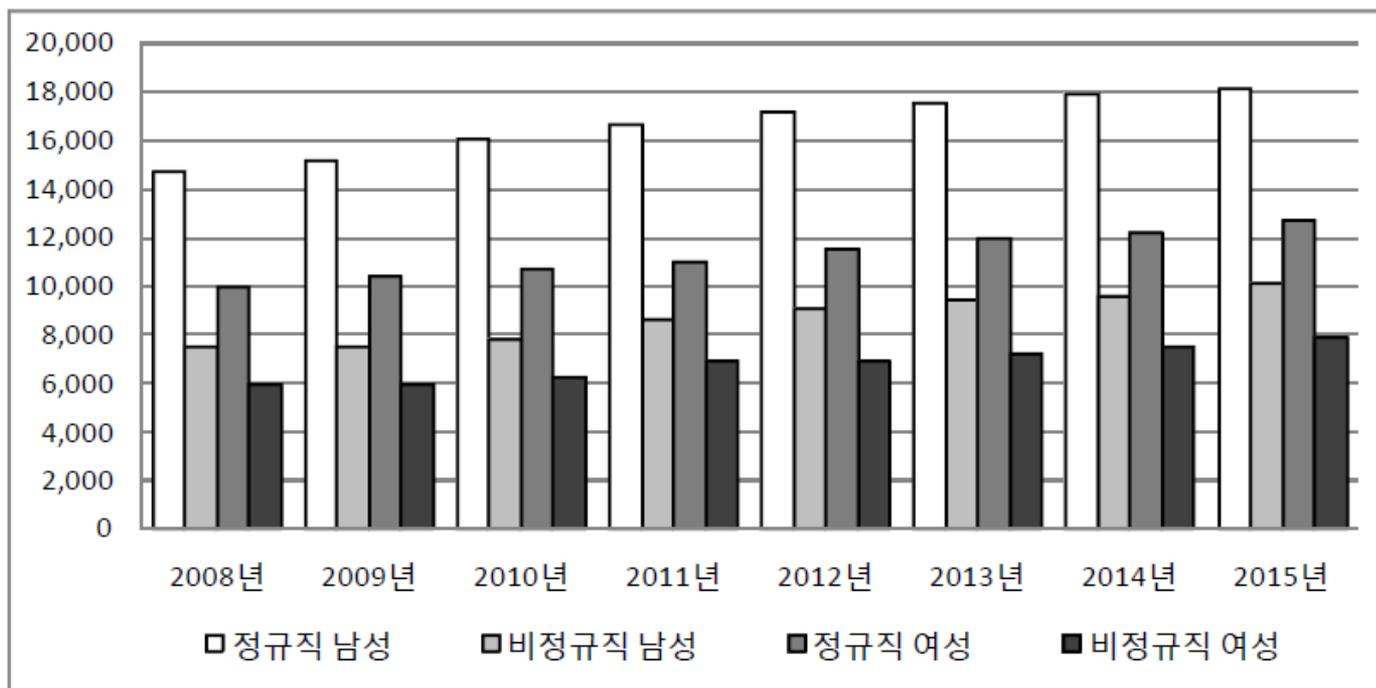
어차피 2는 3,4가 툭 다 거들떠도 안 볼테니까요. 게다가 숫적으로도 1<=3<<<< 2=4 지요.





[그림 1] 한국 남녀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시간당 임금)







-

-



-

-

-

₪





-

-



4